하나님은 믿고 나는 의심하라

(민5:1~31)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3.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4.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7.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의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믿고 나는 의심하라>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나는 의심하라'
우리가 '너 자신을 믿고 용기를 가져라'라는 말을 하는데 절망과 실의에 빠져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격려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여러 사람이 탔는데 방귀 냄새가 납니다. 서로 코를 막고 인상을 쓰면서 옆 사람을 둘러보는데 누가 범인일 확률이 높으냐면 제일 먼저 코를 막고 인상 쓰며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그 사람이 범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의심을 받는다면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받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네가 너를 의심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말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다니는 내막은 '나를 잘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은 뒤집으면 '나를 계

속해서 의심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말과 '의심'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나오는데 '나를 의심하라'고 할 때의 '의심'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100% 믿음의 반대말은 아닙니다. 믿음과 비슷한 말 중에 '신뢰'라는 말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나를 의심하라'는 말은 '나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뢰와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쉽습니다. 김 부장님이 박 과장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신뢰하지만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김 부장은 박 과장의 업무 능력을 신뢰하지만, 인격적으로 좋아해서 술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은 박 과장이 아니라 최 과장일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는 어떤 일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수행 능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일과 연관 지어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내가 믿을 수 있다는 능력을 의심해야 하고, 내가 잘 믿을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확신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신뢰한다면 못 믿게 되고 믿음이 망가지고 믿음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의 신앙고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라틴어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 성령을 믿습니다. /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의 '믿습니다'라는 말이 Credo입니다. 'Credo'라는 말 자체가 '사도신경'이라는 말입니다. 'Credo'라는 말은 '내 심장을 꺼내서 준다'는 뜻으로 '인격의 심장인 마음을 꺼내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데 꼭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기쁨과 만족의 이유로 마음을 주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에는 좋아함이 꼭 들어갑니다. 좋아해서 마음을 주는데 그 마음을 주는 대상이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심장을 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아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에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민수기를 해오고 있는 중에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가 레위인과 장자의 관계입니다. 장자는 우리가 인간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심거리의 대표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대상 중에서 최고의 대상이고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장자 대신에 레위인으로 대속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가지시고 성막에 머물게 한다는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장자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인데 그 장자를 통해 가문이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대신한 레위인이 성막에 있음을 통해서 선민 250만 명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성막에 와 있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이 여덟 명이라면 그들의 심

장이 가족의 장자를 대속한 레위인이라는 항아리에 담겨서 성막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이 서있거나 이동 중이거나 항상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데, 성막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장소로 이스라엘 250만 명의 심장이 성막에 가있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 대신에 돈에게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이것도 믿음이지만 다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레위기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의 지성소에 어떤 것이든지 이름을 들여놓는 것이 믿음이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서 내 마음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마음의 물줄기와 같아서 수도꼭지에 연결 된 호스에서 물줄기가 계속 나오다가, 잠그면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물줄기가 밧줄처럼 한 번 묶이면 계속해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지성소의 이름이 바뀌어버리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을 향해가던 마음의 물줄기가 끊어져버리고 다른 대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영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250만 개의 물줄기가 성막을 향해 집중되고 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에는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앞뒤로 여섯 지파씩 움직이며 앞뒤로 125만개의 물줄기가 성막을 향해 흘러들어오는 상태의 대열로 이동이 되는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까? 성막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전 세계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향하여 물줄기가 모여들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돈을 마음에 집어넣으면 돈이라는 존재를 향해 마음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나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 승천하신대로 우리 마음의 물줄기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우리가 읽은 부분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거하시므로 그 진영을 더럽히는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고 하시는데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와 주검(시체)에 접촉한 자를 내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시체에 손을 대시고 염(殮)을 하시기도 하지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새삼스럽게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고 ‘나병 환자를 진영 바깥으로 보내라’는 이야기는 앞에서도 반복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진영

밖과 진영 안을 비교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영 안의 모습은 말씀 드린 대로 250만 개의 물줄기가 성막을 향해서 줄을 형성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주어지고 있는 형태로 진영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물줄기를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인 반면에 또한 그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250만 명 선민들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사랑과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집어넣고 돈 많이 버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은혜를 받고 싶으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고 내 마음의 물줄기를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계속해서 올려 보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은혜의 보따리에 쌓여서 그 물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마음을 드리는 물줄기를 형성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구하는데 악만 쓰고 있습니다. 그 악을 쓰며 울며 기도하는 모습이 다윗의 참회하는 모습도 아니고 이게 어디 은혜 받을 사람의 모습이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물줄기를 내야 합니다. 250만 명의 물줄기가 성막으로 집중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으로 그 250만 개의 물줄기를 통해 임하므로 그 진영이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사막에 처해 있으면서도 샘이 흐르고 꽃이 피는 낙원이 되는 것은, 무(無)에서부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운이 흘러 들어가는데 내 마음의 물줄기가 대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영 바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와 시체에 접촉한 자를 내쫓는다.’는 것은 진영 바깥의 모습 자체가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와 시체에 접촉한 자가 상징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몸에서 흘러나오는 유출병자가 있을 수 있고 나병 환자가 있을 수 있고 시체에 접촉한 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 모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오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의 언어로 그런 자들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뜻하는 바가 있는데 ‘나병 환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저주의 특징은 에덴 밖의 삶입니다. 기쁨이 없고 항상 불평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옥은 불평만 있고 원망만 있고 우울함만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유출병 환자’는 몸에서 무엇인가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영 안에서는 250만 개의 물줄기가 성막을 향해 뻗어 나가면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뜻이 250만 명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250만 명이 각각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뭉쳐 살면서도 거기에 조화와 평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250만 명이 아닌 70억 명이 한꺼번에 존재해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부딪히지 않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진영 안에서는 물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과 계획과 소원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데,

반면에 바깥에서는 내 생각과 계획과 소원이 나로부터 유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출병 환자의 저주의 삶입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이것이 에덴 바깥의 삶입니다. 자기들끼리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라고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가짜 성공과 실패를 향해서 피하거나 향하거나 하며 애쓰며 살아갑니다.

'주검에 접촉한 자'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일에 일평생 전력질주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영 바깥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줄기의 형성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진영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 때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라는 말은 250만 명의 물줄기가 성막을 향해 연결되어 진영이 짜여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마음의 지성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해 내보내는 마음의 물줄기가 끊어져 버리면 이제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유출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의 물줄기를 끊어버리고 상해를 입히게 됩니다. 결국 '내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물줄기를 방해하는 것이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친다.'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250만 개의 줄 중에서 하나가 끊겨서 나로부터 유출되는 생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주변의 줄이 다 엉키게 되는데 이것이 이웃에게 가하는 상해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키우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의 물줄기가 돈에 가있는 상태에서 자식을 대한다면, 그 자식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망가져버리고 얽혀버리고 맙니다. 꼭 자식을 때리다가 어디가 부러져야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물건을 훔쳐야만 상해를 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물줄기가 끊어져 버리면 반드시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그 점을 유념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진영 밖으로 쫓겨나기 전에 얼른 고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니 의심스럽습니다. 아내가 탈선해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 같은 의심이 들 때에 제사장에게 아내를 데려와서 번제단 옆에 세워놓고 검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있는 물두멍의 물을 그릇에 떠서 그 물에다 번제단의 재를 한 움큼 넣고 두루마리에 저주를 써서 먹물이 마르기 전에 물에 푸는데 저주가 다 담긴다는 뜻이고 그것을 마시게 합니다. 여자가 탈선을 했으면 그 저주가 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줏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시고 깨끗하다면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할 것이라고 하십

니다.

이것이 무슨 과학적 근거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인가 싶은데,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250만 명이 모여 살려면 필요한 많은 법 중에서 불쑥 튀어나온 법이 '의심의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진영 안에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하는 상해에 대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당신의 아내의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법을 시행했겠지만, 오늘날 이 법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대로 행할 수도 없잖아요. 잿물을 먹이겠습니까? 또 먹는다고 살이 썩겠습니까?
이 말이 뜻하는 바는 '탈선을 의심하라'는 것인데 탈선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물줄기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야합니다. 동작 그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합니다. 삶에 현장에 나가서 활동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야합니다. 동작 그만 기도와 동작 중 기도가 십자가 생활화의 내용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실천적 방식이고 존재 방식이에요. 기도가 믿음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기도가 없으면 믿음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의 형태로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기도가 십자가 생활화로 가능한데 십자가 생활화의 기본원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입니다. 이 마음 드림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믿음이 탈선을 의심해야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은 나가서 살거나 한가함을 느끼다보면 마음의 지성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립니다. 나는 그것을 모른 채 아내와 자식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서 하는 말인지, 돈이 들어와 있으면서 하는 말인지를 내가 모른 채로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중에서 마음의 지성소를 차지하며 들어옵니다. 이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미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를 향해서 마음이 가게 됩니다.

성군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좋고 나쁨의 기준을 제시한 왕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에 모든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은 궁정을 거닐고 있다가 밧세바라는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울 리가 없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쁜지 안 예쁜지도 모르고 한 사람이 목욕하는 것이 보였을 뿐입니다. 밧세바가 할머니라도 예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던 성군 다윗의 마음의 지성소에 한 여자의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와 버리고 맙니다. 그 마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 이미지가 가리키는 실제의 인물을 향해 마음이 달려갑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자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저 목욕하는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상태에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감정이 움직이느냐를 의심하지 않고, 자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물줄기가 끊어져버리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내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면 잘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훼손시키면서 자식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 애인, 내 사업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단이 기도의 추진력이라고 했고, 등잔대가 판단과 생각이라고 했고, 떡 상이 배부름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 만족과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안 됩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 언제나 그 이름이 모셔져있고,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물줄기를 대야 하는데 나는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라도 의심을 끊으면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 말고 다른 것이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늘 내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한,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반드시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립니다.
만약에 '십자가 생활화'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 복음방송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기독교인보다도 제가 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가장 의심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이렇게 아침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는 이유는 나를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내 능력자체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튕겨져 나가고 다른 이름이 들어와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향해서 뛰쳐나가고 추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뻐하거나 슬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줄이 끊어진 나를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줄이 끊어진 상태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배부르기를 원하는 이 마음 이 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야할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가 머물러야 할 곳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세상에서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은 이북의 김정은과 일본의 아베수상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의심하면 모든 의심스러운 범죄자들을 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인류를 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당신 자신을 의심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고전9:20-22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롬7: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자기를 의심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하므로 주님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의심하세요. 나를 의심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생활화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물줄기를 끊이지 않고 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도와주셔서 나를 의심하게 하시며, 그 의심의 힘이 반등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센 물줄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십자가 생활화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